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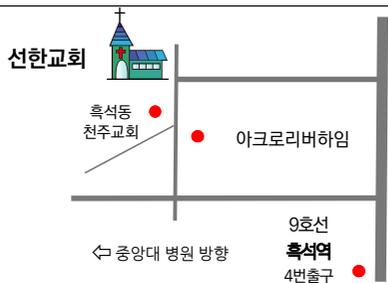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진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응,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5:33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8장
교 독 문	교독문 31 (시편 68편)
찬 양 과 경 배	452장 (통일찬송가 505장)
대 표 기 도	조계승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6장 9~13절
설 교	이렇게 기도하라2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 (잠3:13-20)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안내**
 - 8/23~8/31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 주일예배: 11시 예배만 드림 (예배영상 제공)
 -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설교 자료만 제공 / 금요일기도회는 영상제공
 -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개인건강훈련 안내**
 - 가정예배드리기 2.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 성경일독하기: 일독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일독 기념품 증정)
 - 경건서적읽기 5.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 코로나19 기도 제목**
 -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 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경건의 삶을 이루어 가기를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를

찬송 : '어둔 밤 쉬 되리니' 330장(통 370)

본문 : 호세아 10장 9~15절

말씀 : 오늘 본문 12절은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로 봐도 좋을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정의를 부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주님이 기대한 것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사회, 곧 정의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노력을 하면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는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일이나 왕을 갈아치우는 일엔 부지런했지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개혁이란 이름 아래 밭을 갈아엎기도 했지만, 거기에 부린 것은 사랑과 정의가 아니라 죄악의 씨였습니다. 그 결과는 반역을 거둬 거짓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적당히 살아도 관찮을 거라 여긴 건 나름 준비한 것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패나 환난 같은 일은 쉬 겪지 않으리라고 여겼습니다.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부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네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13절)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에게 주님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실망과 탄식, 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경제와 외교, 국방과 이방의 우상을 죄다 허상이 되게 만듭니다. 믿었던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 곧 이스라엘의 안보 대책은 특히 적의 공격을 부르는 빌미가 됐습니다. 이로써 수많은 아들뿐 아니라 이들의 어머니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전쟁을 겪습니다.(14절)

이런 환난을 피하려고 이스라엘은 보물을 싸 들고 앗시리아를 찾아가지만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고, 아무것도 살 수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앗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예브라임이 대가로 받아 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7절)

결국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보다 급하고 귀한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갈아엎는다’는 ‘흙덩이를 부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수고 깨뜨리는 회개가 인격적이지 제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럴 때야 비로소 은혜의 비를 촉촉이 머금은 땅이 돼 의로운 싹을 틔울 것입니다.

제목

이렇게 기도하라2 (마6:9-13)

서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 바른 기도의 내용

- (1)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9절)
- (2) 하나님을 향한 간구: 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9절)
② ‘나라가 임하시오며’(10절)
③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10절)
- (3) 우리를 향한 간구: 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11절)
②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12절) ③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13절)
- (4)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13절)
- (5)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마침(요14:14)

본론

2. 교훈

- (1) 나의 기도 내용 대부분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 (2) 오늘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인가?
- (3) 내가 잘 빠지는 죄의 유혹은 무엇인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결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대로 바르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계승 장로	유신웅 장로

찬양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본문	로마서 13:8-14
	<p>바울은 성도들에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고 명하면서 사랑을 행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모든 계명의 근본 사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이웃에게 해를 끼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심에서도 나타납니다. 새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성도들로서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율법보다 차원이 높은 사랑의 법을 좇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p> <p>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워 왔으므로 성도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권면하였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악한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두움은 짙어지나 새벽이 가까워 오듯이 세상이 더욱 악하여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을 버리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p>
묵상질문	1. 이 코로나 시대에 빛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의 기도	

찬양과 기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새 85/통 85)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연예인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예배를 드릴 때면 여자 연예인들은 시커먼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눈물에 마스크라가 녹아내린 것입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연예인들이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런 고백을 올렸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개성 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명한 가수, 성우, 탤런트, 코미디언 등이 성가대를 이루어 찬양하는 모습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가대는 완전히 무질서 자체였지만, 거룩한 합창이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다녀 본 적이 없던 연예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특별한 화답을 하곤 했습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에 수긍하면 기립 박수를 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웁소~!" 연예인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명MC 광규석 씨의 의견을 물었을 때 "전도사님은 연예인들을 몰라요.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이 병들면 우리는 외면할 겁니다. 공부도 방해받을 것이고요"라며 만류했습니다. 나는 "어려운가 쉬운가를 제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연예인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에 광규석 씨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진리 위에 세워져 가고 있나요?
말씀 나누기	로마서 14:1~12
묵상포인트	믿음으로 의를 얻은 성도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함과 이로 인한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 동기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주님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 그분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분과 온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음식과 절기로 인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1~5절)
적용하기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배경이나 삶의 기준 때문에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나요?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제 생각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던 습관을 회개합니다. 저와 지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신앙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본문	로마서 15:14-21
	<p>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들로 더욱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이 땅에서는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없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다져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p> <p>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사명이 특별히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베루신 이적과 능력과 기사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일을 인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써 많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 받았던 것입니다.</p> <p>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에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로 힘썼다고 증거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언제나 어려움이 많은 동시에 새롭게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서의 원칙은 그의 투철한 사명 의식을 증거하여 줍니다.</p>
묵상질문	1.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직분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보라
본문	로마서 14:1-12
	<p>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방 지역에는 언제나 우상 제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기독교인이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언제나 대두되었습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그 일로 인하여 성도가 형제를 판단하는 일에 대하여 경계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 먹기를 꺼려하였고 믿음이 굳건한 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강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교훈하였습니다.</p> <p>성도가 서로의 믿음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하여 바로 행하지 못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p>
묵상질문	1. 비판은 무조건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아야 하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본문	로마서 14:13-23
	<p>바울은 형제 앞에 넘어질 걸림돌을 두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므로 서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로 인하여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법을 어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구원하신 영혼을 식물에 대한 사상 때문에 실족시킨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스르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모든 신앙 생활의 근본 원리가 사랑에 있음을 교훈 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충만하여 바르게 행하고 판단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여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범 죄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 행위에 대한 열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범죄에 빠지는 오류를 경계하여야 합니다.</p> <p>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함으로써 신앙 생활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였습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성도들간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존재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적 열심에서 벗어난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함과 사랑 가운데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성도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말하였습니다.</p>
묵상질문	1. 나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330장 둔 밤 쉬 되리니
본문	로마서 15:1-13
	<p>바울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함이 마땅함을 밝히면서 성도가 각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 것을 명하였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여야 할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모범된 사랑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할 죄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교훈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일맥 상통합니다. 그리스도의 파랑의 계명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실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p> <p>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본받아 사는 데 있어서 인내와 성경의 안위가 필요하며 그로 인해 소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입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자신들이 복음을 증거함을 밝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받아들여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같이 성도들도 서로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용서와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p> <p>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를 받아들일 것을 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받아들여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포용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함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에 있음을 피력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지닌 자들이므로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p>
묵상질문	1. 다른이의 짐을 같이 지고서도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았을때가 있나요?
오늘의 기도	